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7. 6.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건설정책 연구실	연구책임자	백성준 부연구위원 강민석 책임연구원	전화 번호	3441-0774 3441-0769
------	-------------	-------	------------------------	----------	------------------------

제 목: 2006년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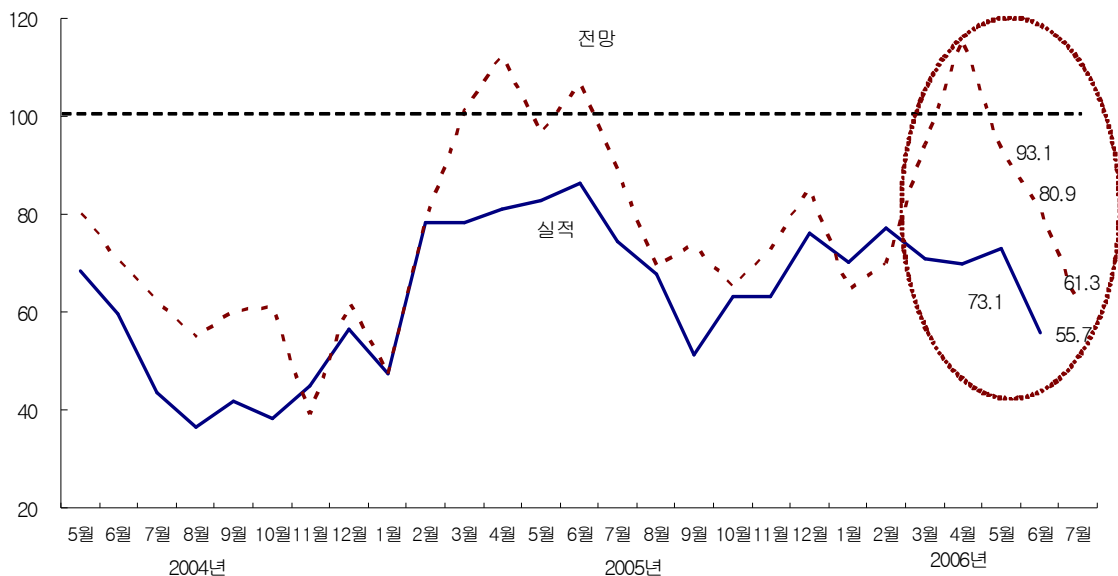
- 2006년 6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55.7을 기록함.
 - 지난달에 비해 17.4p 하락하여 체감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
 - 공공부문의 발주 부진 지속, 지방 주택시장 위축, 양극화 심화에 따른 중소건설업체 체감경기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규모별 지역별로 체감경기가 모두 부진한 상황임.
 - 비교적 경기가 좋았던 대형업체는 전월에 비해 16.7p 하락한 83.3을 기록함.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는 각각 45.5, 35.0을 기록하여 50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보임.
 - 지역별로는 서울과 지방업체가 각각 66.5, 39.9에 불과함.
 - 7월 전망지수는 61.3을 기록하여 3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공사물량 지수는 66.3을 기록하여 3개월째 지수하락이 지속됨.
 - 공종별로는 모든 공종에서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택의 경우 전월에 비해 8.8p하락하여 2개월째 지수가 하락함.
 - 규모별로는 중견업체(61.3)와 중소기업체(43.2)의 물량부족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과 자재 수급은 여전히 원활한 상태가 지속됨.
 - 인력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101.5, 105.8로 나타남. 반면 자재비 인건비 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금조달은 대형업체를 제외한 중견·중소업체에서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2006년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체감경기 전월에 비해 17.4p 하락

- 2006년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55.7을 기록함.
 -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17.4p 하락하여 급격하게 체감경기가 악화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 이는 건설수주액이 3월 이후 3개월째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주택 경기를 중심으로 한 민간건설시장의 위축, 공공부문 발주 부진, 양극화에 따른 중소기업 체감경기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1~5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3.6% 감소함.
 - 공공부문에서 신규발주가 국가계약법 변경후 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실제 발주물량 부진이 지속되면서 체감경기가 하락함.

- 민간부문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시장이 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면서 체감경기가 크게 하락함.
- 대형업체를 포함한 모든 업체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매우 심각한 상태임.
 - 대형업체는 83.3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16.7p가 하락함.
 - 중견업체(45.5)와 중소기업(35.0)는 전월보다 각각 17.0p, 18.7p 하락하여 50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가 각각 66.5, 39.9을 기록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망
총 합		74.2	67.8	51.3	63.0	63.3	76.1	70.1	77.2	70.8	70.0	73.1	55.7(80.9)	61.3
규모 별	대형	100.0	83.3	41.7	61.5	72.7	100.0	80.0	100.0	88.9	85.7	100.0	83.3(84.6)	76.9
	중견	76.5	63.9	59.1	76.9	59.3	79.4	70.6	71.1	70.6	55.9	62.5	45.5(75.0)	48.5
	중소	41.5	54.0	53.7	48.9	56.9	44.4	58.0	57.4	50.0	67.6	53.7	35.0(83.3)	57.5
지역 별	서울	86.4	80.9	50.1	71.0	69.5	87.4	79.3	87.5	84.5	75.5	87.2	66.5(84.5)	68.8
	지방	59.8	57.6	55.5	60.3	53.2	38.8	57.3	62.3	49.8	64.6	52.3	39.9(73.2)	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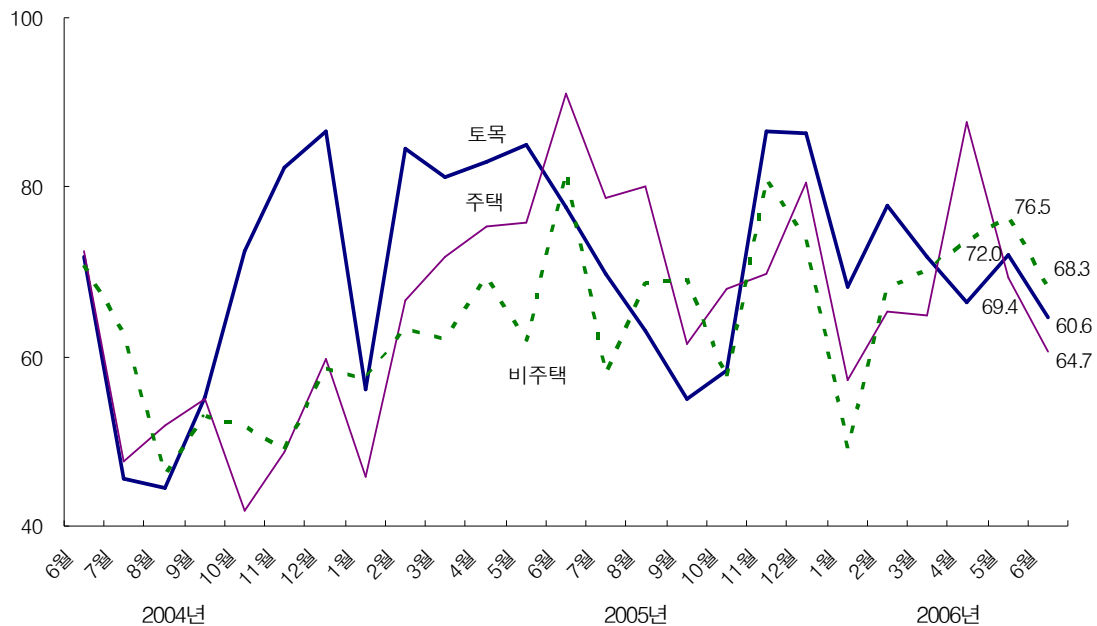
주 : ()는 전월에 전망한 수치임.

- 2006년 7월 건설경기 전망은 61.3을 기록함.
 - 전망지수는 19.6p 하락하여 3개월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115.7(4월)→93.1(5월)→80.9(6월)→61.3(7월)).
 - 하반기 들어 신규 공공공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지방 주택 분양시장의 침체로 전반적인 체감경기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주택물량 지수 2개월째 크게 하락

- 공사물량지수는 66.3을 기록함.
 - 전월에 비해 10.8p 하락하여 3개월째 지수하락이 지속되고 있음¹⁾.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공종별로는 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종에서 지수가 하락함.
 - 토목물량지수는 64.7을 기록하여 지난달에 비해 7.3p 하락함. 업체들의 기대와는 달리 공공부문의 물량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 주택부문은 60.6을 기록하여 지난달에 비해 8.8p하락하여 2개월째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주택 부문(68.3) 역시 8.2p 하락하여 공사물량이 감소하고 있음

1) 총 공사물량과 공종별(토목, 주택, 비주택)물량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조사됨으로 인해 공종별 지수와 전체 물량지수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반적으로 크게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체의 물량부족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남.
- 대형업체(90.9)는 비교적 실적이 좋았던 토목공사물량이 감소하며 공사물량지수가 기준선에 미치지 못함.
-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는 각각 61.3, 43.2를 기록하여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78.8)와 지방업체(49.0)가 각각 지난달보다 12.6p, 10.1p 하락함 .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대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6.3	90.9	61.3	43.2	78.8	49.0
	전망	75.0	100.0	67.7	54.1	89.8	54.0
토목	실적	64.7	84.6	67.7	37.8	77.7	46.0
	전망	68.8	76.9	67.7	60.5	79.5	54.2
주택	실적	60.6	76.9	67.9	33.3	71.0	45.1
	전망	73.1	76.9	82.1	58.3	77.1	67.2
비주택	실적	68.3	92.3	70.4	37.8	86.9	40.4
	전망	78.8	100.0	84.6	47.2	95.7	56.9

주 : 실적은 2006년 6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6년 7월 예측지수임.

- 2006년 7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75.0을 기록함.
-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3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냄(100.5(4월전망)→91.4(5월전망)→84.0(6월전망)→75.0(7월전망)).
- 대형업체(100.0)는 이번달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조사된 반면 중견업체(67.7)와 중소기업체(54.1)는 공사물량의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함.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인력·자재 수급 원활 지속

- 자금관련 상황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급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각각 92.9, 81.9로 여전히 기준선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됨.
 - 대형업체는 공사대금수급과 자금조달지수가 각각 115.4, 100.0을 기록하여 자금조달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중소기업체의 경우 82.5, 77.5로 자금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92.9	115.4	78.8	82.5	95.0	89.9
		전망	81.9	92.3	72.7	80.0	83.0	80.3
	자금조달	실적	87.0	100.0	81.8	77.5	92.9	78.4
		전망	82.1	92.3	75.8	77.5	88.3	73.3
인력	수급	실적	101.5	100.0	100.0	105.1	101.8	103.1
		전망	107.4	107.7	109.1	105.1	108.1	108.2
	인건비	실적	89.3	92.3	87.9	87.5	95.4	80.3
		전망	88.1	84.6	87.9	92.5	89.1	86.6
자재	수급	실적	105.8	115.4	103.2	97.4	115.3	93.5
		전망	109.3	123.1	103.2	100.0	119.8	95.3
	비용	실적	80.6	92.3	73.3	75.0	85.2	73.9
		전망	79.1	76.9	80.6	80.0	79.5	78.5

주 : 실적은 2006년 6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6년 7월 예측지수임.

- 인력과 자재조달의 경우, 수급 여건은 원활하나 비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인력수급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101.5, 105.8로 원활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인건비와 자재비지수는 각각 89.3, 80.6을 기록하여 최근 건설경기의 부진에도 여전히 가격이 높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7월에도 인력 및 자재의 비용은 높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됨.
- 2006년 7월의 인력수급(107.4)과 자재수급(109.3)은 모두 원활할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 지수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8.1, 79.1을 기록하여 인건비와 자재비 부담은 클 것으로 예상됨.